“성철 대종사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해인사,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

방장 · 원로대덕 스님들 동참
인도불교 삼장법사 추대패
의현 스님이 문도회에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고 청빈한 삶과 철저한 계행으로 추앙받은 퇴옹당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는 11월 3일 대적광전에서 방장 원각 스님,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 前원로의장 대원 스님,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 안국사 회주 수불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백련문도회장 원택 스님을 비롯한 제방 선원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례재를 봉행했다.

원로대덕 스님들의 헌향과 헌다에 이어 사부대중은 “이 땅에 설파하신 부처님 교리는 생황처럼 다양하게 맑은 음색으로 화음을 이루고, 항상 그릇됨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도를 드러내어 부처님법에 돌아가게 하셨다”며 “탐진치 삼독으로 상처와 번뇌의 업과에 쌓인 저희들에게 진여의 차를 찾아 보여주시고 감로미를 맛보게 해달라”고 대종사를 추모했다.

참석대중은 조계종 종정 재임 당시인 1982년 부처님오신날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를 합송하며 생전 성철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에서는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이 인도 불교 샤카싱아 종단 삼장법사 추대패를 문도대표 원택 스님에게 전달해 불전에 봉정했다. 삼장법사 추대에는 스바흐리띠대학의 불교대학 개설에 기여한 의현 스님이 대학교 측으로부터 성철 스님을 샤카싱아 종단 삼장법사로 사후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철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헌향 · 헌다한 원로스님들. 왼쪽부터 대원 대종사, 원각 대종사, 의현 대종사, 정여 대종사.

원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도에서 큰스님을 삼장법사 지위에 추대하는 증명패를 해인사에 전해주시고 그 영광을 돌려주신 데 문도로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저희 문도들도 성철 종정예하의 가르침에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공부를 성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철문도회와 불자들은 10월 28일 스님의 사리탑 앞에서 3000배 정진을 진행한 데 이어 해인사 백련암에서 나흘 동안 ‘4일4야 4만8000배 참회법회’ 철야정진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

2025 여래종 창종 60주년 대작불사 돌입

11월 5일, 총본산 대약사사 개산 38주년 기념법회 봉행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이 개산 38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을 위한 대작불사에 돌입했다. 여래종은 11월 5일 여래종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개산 3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2025년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불사를 선포했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창종주 인왕 대종사께서 종단 총본산인 대약사사를 옥천에 건립한지 38년이 됐다. 그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힘써준 종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왕 스님께서 생전 말씀하신 여래종의 전국화, 세계화와 구병 구호 구도 유훈을 이어 청동약사대불 건립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래종 7대 서원인 ‘중생이 곧 보살이고 보살이 곧 여래다’ 는 취지로 약사대불을 모시고자 하니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여래종 대덕 스님들과 종도들이 창종 60주년을 앞둔 대작불사 중 하나인 청동약사대불 건립을 시삽하고 있다.

청동약사대불은 옥천 대약사사 인근 산에 조성되며 높이 27m 규모다. 이와 함께 대약사사 또한 3층 높이 건평 500평으로 증축불사에 들어가 3층에서 약사대불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창종 60주년과 창종주 인왕 대종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여래종은 종단 산하에 학교법인 인왕학원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사여래 구병기도를 전개, 총 5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연한다는 방침이다.

명안 스님은 “학교법인을 통해 불교지도자와 국가에 꼭 필요한 구성원을 배출하고 종단과 나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래종 발전 계획이 발표된 법회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일연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문도회장 묘선 스님, 최정례 신도회장, 이창호 여래구도봉사단 이사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여래종은 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제29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에서 해외 포교 및 소외계층 돌봄을 실천한 공로로 단체상을 수상한다.

노덕현 기자

‘佛法마당’ 펼친 진주불교회관 개관 30주년

11월 5일 기념법회…“모범 신행단체 발전 노력”

경남 진주에서 불법마당이라는 전법도량으로 개관한 (사)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11월 5일 도원외식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홍수승 이사장을 비롯해 연암난야 도현 스님, 무불관 철현 스님, 기원정사 성각 스님, 평안사 지현 스님, 북천사 재연 스님, 사천왕사 능륜 스님, 청련암 원명 스님, 선연사 희묵 스님, 도정사 도정 스님, 양천사 허경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서 홍수승 이사장은 기원정사 성각 스님과 하귀만 8대 이사장, 이가은 10대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가야불교대학 학장 지현 스님은 진주고교 3학년 박시언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지난 30년 역사의 진주불교회관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전망한 ‘걸어온 길 30년, 걸어갈 길 100년’ 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홍수승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동안 진주불교회관을 후원하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신심 있는 불자 양성, 스님들을 외호하며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1월 5일 도원외식에서 열린 진주불교회관 개관 30주년 기념법회.

승려시인 도정 스님은 축시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지난 30년의 공양은 새로운 300년의 공양이 되리니. 초발심의 원력만 정녕 놓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함께 부처님도 되고 불법도 되고 승가도 되어 이바지하여 기를 주체도 원만하리니. 일체가 극락이요, 자타가 성불이며 지금 이 자리가 무여열반일로라”고 개관 30주년을 축하했다.

이어진 2부에는 지리산 토굴 ‘연암난야’ 에서 수행 중인 도현 스님의 축하법문이 이어졌다. 스님은 길상초를 주제로 “남방불교는 아라한을 추구하고 북방불교는 보살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한국불교는 관음신앙이 주된 신앙으로 발전해왔지만 미래는 보현행원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인구도 줄고 신도수도 줄어드는 요즘 불교회관과 같은 도량에서 전법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발전 · 시민행복, 무등산 산신께 기도”

광주동구불교협의회 ‘2023 무등산 산신대재’

광주의 성산인 무등산 산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산신대재가 열렸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중현, 증심사 주지)는 11월 5일 수자타 2층 강당에서 ‘2023 무등산 산신대재’ 를 봉행하고 광주의 평안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올해 17회째인 산신대재는 당초 무등산 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광주시무형문화제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이수자 호산 스님의 집전으로 산신불공과 작법 등이 진행됐고, 축문과 기념식,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중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무등산에서 오랜 기간 산신을 모시고 기도를 올리며, 이를 통해 마을을 지키고 화합해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다”며 “산신대재는 민족이 살아온 지혜를 되살려 광주의 풍요와 발전을 기원하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전통문화”라고 강조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장 중현 스님과 임택 동구청장의 헌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수천년을 이어온 산신신앙의 의미를 살려 정성스런 기도를 통해 광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계묘년에도 광주시민과 가족 모두가 만복이 깃들기를 산신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축원했다.

행사에는 중현 스님과 도성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암스님, 이병훈 국회의원, 김재식 동구의회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기념식 이후 증심사, 관음사합창단과 이영애 국악예술단과 나빌레라무용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晩秋로 물든 고찰서 ‘음악여행’

부안 내소사 ‘2023 문화여행 산사음악회’ 열어

가을이 깊어가는 전북 부안의 천년고찰 내소사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여행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11월 4일 가을이 짙어가는 고색창연한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부안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이동배 정광중 교장,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했다.

우천으로 인해 야외가 아닌 우화루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KBS 탑밴드 시즌2 준우승 팀인 로맨틱 펀치가 첫 무대를 장식했다. 이어 현악 4중주 ‘아르떼’ 는 클래식 악기로 ‘가을편지’ ‘옛사랑’ 등을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해 대중의 마음에 평안을 선사했다. 또 포크가수 정태춘 · 박은옥 부부는 ‘탁발승의 하루’ ‘시인의 마을’ ‘촛불’ 등 히트곡을 선보였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소사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으로 ‘신해정승’ 으로 불린다”며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를 만끽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한동일 관광복지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만추가 아름다운 내소사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축하드린다. 주변 경관과 문화재, 음악회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시기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심사찰 자비행 20년 ‘지역사회 귀감’

광주 소원정사, 11월 3일 창립 20주년 법회

광주 도심 속 나눔사찰 소원정사(주지 도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소원정사는 11월 3일 주지 도계 스님, 목포 반야사 주지 진각 스님, 관음사 소운 스님, 광덕사 주지 상진 스님, 빛고을포교원 연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0년간 이어온 나눔의 시간을 축하했다.

도계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 만행을 왔다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며 살아야겠다는 소망으로 조그마한 인법당인 소원정사를 개원하게 됐다”며 “지난여름 폭풍으로 일부 소실된 부분 공사를 마치고 선보이게 됐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원정사는 그동안 부설 연꽃자비나눔본부를 통해 광주 대인동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음식나누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스님들 의료비 지원, 매년 30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공무원 불자를 위한 떡 나누기를 비롯해 어린이 구호물자 전달, 독거노인 삼계탕 공양 등 의 자비행을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베트남에 전한 약사여래 손길

태고종 전북종무원 등 닥랑성 연합 의료봉사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 (사)붓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 대구중구청 자원봉사센터가 베트남 닥락성에서 연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11월 2일부터 3일간 부온마투옷 의과대학 및 약학병원과 함께했으며, 닥락성 끄므까르현 지역주민 1000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봉사활동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주 천지사 현진 스님, 대구중구청 자원봉사단 약사 유규하 청장 등 34명이 동참했다. 부온마투옷 의과대학 및 약학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해외봉사단은 건강검진, 진료상담 외에도 효과적인 피임 방법, 감염 예방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 활동도 진행했다. 봉사단은 또한 한복체험,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다양한 한국 문화교류 활동과 음악공연을 선물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역주민에게는 5kg의 쌀과 의류, 각종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다.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흥낫 씨는 “의료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인의 연대 정신에 감동받고, 건강관리에 더 힘써야겠다고 느꼈다”며 “동시에 우호교류로 전북과 닥락성의 인적 외교 강화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계품서식 봉행

15년 만에 대종사 31명 · 명사 8명 · 종사 20명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11월 8일 양산 불광사 금강계단에서 대종사 · 명사 · 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총 59명의 품수자들은 가사를 수하고 수행과 전법에 진력할 것을 서원했다.

종정협의회장 월인 스님은 “금란가사는 한평생 수행한 수행자가 최고 지위의 올랐다는 증표”라며 “최고의 지도자들만이 수할 자격이 있는 만큼 앞으로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 법을 지키고 수행과 전법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 만에 봉행한 종정협의회 법계품서식에서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사)대원불교조계종 청봉 스님을 비롯한 대종사 31명과 (사)대한불교승가종 무착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명사 8명, (사)대한불교승가종 선조 스님을 비롯한 종사 20명이다. 이날 월인 스님은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경 스님과 대한불교승가종 무착 스님에게 종정협의회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